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 집중 논의될 듯

남북공동위 오늘 첫 회의... 상시협의기구 3년만에 부활

남북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이하 공동위) 제1차 회의를 2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연다. 남북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동위 운영에 나서면 그동안 단절됐던 당국 간 상시 협의기구가 3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공동위의 첫 회의에서는 가동이 중단된 지 다섯 달이 다 돼가는 개성공단의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조속한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에서 합

의원대로 발전적 정상화 방안 논의 등과 병행해 논의하자는 입장이자. 이번 회의에서 어느 정도 재가동 시점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안에도 개성공단은 부분적인 재가동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개성공단 현지 기반 시설의 점검 결과, 현 시점에서 재가동에 별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간 협의가 난항 한다면 재가동 시기는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밖에 공동위 1차 회의에서는

▲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통행·통신·통관 ▲국제경쟁력 등 4개 분과위의 운영 방향과 공동위를 지원할 사무처의 구성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양측은 기본적으로 공동위를 분기예한 번씩 열지만,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열기로 합의했다. 공동위원장은 우리측에서는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북측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맡는다.

이밖에 4개 분과위원장 등 양측에

서 5명씩 모두 10명의 공동위원이 1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남북은 당국 간 상설 협의기구로 지난 2005년부터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를 운영한 바 있다. 경협사무소는 북한 지역에 투자 또는 교역을 원하는 우리 측 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당사자 간의 연락을 도와주는 등 민간 경제 협력 분야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해 왔다.

남북 당국에서 국장급 소장을 대표로 10명 안팎의 당국자들이 매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은 상호 소통을 매끄럽게 해주는 측

면에서 큰 장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2010년 5월 우리 정부의 5·24 조치에 반발해 북한이 당시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함께 폐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지금껏 3년이 넘도록 경협사무소는 텅 빈 공간으로 남았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공단 문제를 다룰 채널로 경협사무소를 다시 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보다 더욱 권능이 강화된 협의체의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하면서 이번에 남북공동위의 구성이 합의됐고, 공동위를 지원하는 사무처가 당국 간 상시 협의 채널 역할을 맡게 됐다.

킹특사 초청

北, 전격 철회

향후 재추진 불투명

북한이 지난 30일 오후로 예정됐던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의 초청을 철회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시민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의 석방을 추진하기 위해 30~31일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던 킹 특사에 대한 초청을 철회한다고 통보해왔다”며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날 방북해 지난해 11월부터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협의한 뒤 배씨와 함께 31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하프 부대변인은 또 킹 특사의 방북이 이후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킹 특사의 방북이 다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킹 특사가 방북한 뒤 배 씨와 함께 귀환할 경우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북한은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 초청을 철회한 것에 대해 미국이 한미 합동군사연습 기간 전략폭격기를 출격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군사개입 안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군사행동 이전에 의회 승인을 요구한 가운데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시민들이 시리아 사태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바마 “시리아 공격 의회 승인 받겠다”

의회 9일 개회... 서방, 군사공격 금명간 힘들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부를 응징하고 공격할 준비가 끝났지만, 군사 행동 이전에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공습 등 군사 작전은 의회가 9월9일 개최해 토론과 투표를 거쳐 무력 사용을 승인해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

표했다.

그는 이날 조 바이든 부통령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팀을 백악관에 소집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이같이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난 일(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대규모 인명 피해)에 눈을 감아

서도 안 되고 눈을 감지도 않을 것”이라며 “심사숙고한 끝에 나는 이에 상응해 군사 개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군이 시리아 주변 지역에 이미 배치돼 있으며 결정만 내리면 언제라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격 시점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주가 될 수도 있으며 내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나 스스로 군사 작전을 명령할 권한이 있지만 이에 대한 민

주적인 토론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본다”며 “무력 사용에 대해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의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원했고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 지도부에 5주간의 여름 휴가를 끝내고 9월9일 다시 문을 여는 대로 이 문제를 토론회 투표로 거쳐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시리아 응징에 대한 강경 기류에 앞장섰던 영국이 의회 반대에 부딪히고, 미국도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기로 함에 따라 시리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 공격은 금명간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北 이산상봉 의뢰 명단 12.5%

남측가족 생사 확인한 적 있어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생사확인을 의뢰해온 명단 가운데 12.5%는 이미 남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3년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북측 의뢰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200명 중 25명은 과거 상봉 행사를 계기로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기록이 있다.

김화인(84), 김명숙(80·여)씨 등 14명은 화상상봉 후보자로 선정됐을 때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적 있다.

또 김경화(87·여)씨를 비롯한 11명은 2010년 추석 이산가족 상봉(10월30일~11월5일) 당시 상봉 후보자로 선정돼 남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했지만 최종 명단에는 들지 못했다.

반면, 우리 측이 북측에 건넨

의뢰자 명단 250명 중에는 이산가족의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없다.

한적은 1차 후보자를 추천할 때부터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아예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사람 대부분이 아직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 중 생존자만 7만명이 넘는 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북한은 보통 이산가족의 생사가 확인된 명단을 다시 활용해왔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달 13일 이산가족 상봉 후보의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하고 16일에는 이산가족 상봉 최종명단을 100명씩 주고받을 예정이다.

시·도의회 임시회 개회... 전남 2일·광주 3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2~3일 일제히 임시회를 개회한다.

광주시의회(의장 조호권)는 3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서는 홍인화(민주·북구 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과 문상필(민주·북구 3)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과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취득세를 인하 정책 철회 촉구결의안 등 결의안 2건 등이 심의·의결된다.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도 2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11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결의안 등을 채택한다.

이번 회기 중 김재무 의장이 대표 발의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 등 의원발의의 안건 22건, 박준영 전남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등을 의결·승인한다.

전남도내 축산분야 규모화·조직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영향

전남도는 1일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의 확산으로 축산 분야가 규모화·조직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남도 내 한우의 80%(40만4000마리)가 조직화된 광역·시군 자체브랜드 및 한우사업단(시·군 축협)에서 사육되고 있다. 이 중 브랜드한우는 27.7%(14만 마리), 한우사업단은 52.3%(26만4000마리) 규모다.

농가 규모별로는 한우 20마리 이상 전업규모가 7000여호로 이는 도내 전체 한우농가의 80%를 차지, 규모화 및 전업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2만7000 호에서 15만7000 마리를 생산하던 것이 2012년 6월 2만4000호 14만마리, 올 6월 1만9000호 11만3000 마리로 줄고 있다. 폐업 지원금은 8월 현재까지 430호 7000마리에 지급돼 대부분 20마리 이하 영세농가에 돌아갔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용산동 웨딩홀
대지 1924㎡ 건물 3290㎡
감정가액 47억 3천
채권매각 20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액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액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코토빌타운 분양사무실]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액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청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청단 월계동 건물 매 36억
-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보증금 2억8천, 월81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청단 구부점포 105㎡ 매 8억6천(보증금 8천, 월430만)

대지/전답

- 나주 혁신도시 인근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창고,공장 적합)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펜션,귀농지,전원주택용지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대 660㎡, 신축주택포함)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오양병원,관광농원 적합)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용 4.5억 포함)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
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
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공장 매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물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
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